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주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천하에 어리석은 자

지식 없는 소원은 선지 못하고 남에게 상처만 주는 악이다. 즉! 지식 없는 열심은 화로 없는 불이 주위를 다 태우는 것 같이, 주위 사람에게 상처만 준다.

천하에 제일 어리석은 자는 큰소리치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자다. 어느 날, 서울 한 번 가보지 않은 시골 두 영감, 김 진사와 이 진사 사이에 싸움이 대판 벌어졌다. 동네 사람들이 다모여 양분돼서 ‘김 진사 이겨라, 이 진사 이겨라’ 한다. 피가 튀길 지경이다. 사연인즉 ‘남대문에 문지방이 있다, 없다’로 싸우는 중이었다. 이를 보다 못한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서울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이다. 그가 흑백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데, 남대문에 문지방이 없는 것이 아닌가. 문지방이 있다고 큰소리치던 김 진사와 편들던 자들의 코가 쑥 빠져 뒷머리만 굽는 모습이라니….

예수를 만난 자와 못 만난 자의 싸움도 이와 같다. 또한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도 이와 같다. 옛말에 ‘빈 수레가 소리만 요란하다’는 말이 있다. 지식이 없는 자의 큰소리는 장작 타는 소리와 타는 불꽃같아 주위 사람의 웃만 태워 못쓰게 만든다. 그러나 지식 있는 자의 불은 짚이 타는 소리에 주위를 따뜻하게 만들고 짐 실은 수레와 같다.

천하에 제일 어리석은 자는 가보지 않고, 먹어보지 않고, 만나보지 않고 큰소리치는 자다. 경험하지 않고 말하지 마라. 경험을 능가할 지식은 없다. 도마처럼 직접 만져보고 경험하면 예수의 증인이 된다. 남의 말만 듣고 춤을 추는 자 되지 말고 이번 기도원 집회에서 주님을 만나봐라. 하나님을 체험하라. 그러면 세상이 뭐라고 떠들어도 확신에 찬 증거자, 전도자가 될 수 있다. 물건을 팔 때 내가 써봤어야 효능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은가.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라. 4월 2일이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당신의 삶이 크게 변화될 것이다.

자유는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아는 것만큼 자유롭다. 영생의 길을 알아. 모르면 아는 자에게 겸손히 길을 인도받아라. 이것이 지혜다.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져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비록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응답을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

북한 정권이 제 아무리 핵이니, 미사일이니 하며 위협을 해도, 주변 4대 열강이 그 어떠한 압력을 가해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찬송하며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기도한대로 피한방울 흘리지 않는 평화통일의 대역사로 이루어갈 것임을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갖 시련 속에서

못한 전개가 아닐 수 없으니 이는 분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지난 9차에 걸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깨달았다. 도저히 날짜가 없다며 할 수 없었던 서울광장의 6차 평화통일 기도성회, 그리고 성회 전날 폭풍우가 몰아쳤던 전쟁기념관의 7차 평화통일 기도성회와 서울광장의 9차 평화통일 기도성회,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성회를 준비한 우리는 10월에 경험한 그 뜨거웠던 태양과 푸른 하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감지하였다.

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계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수4:1~7).

기억하라는 것이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다. 목사님이 일기를 쓰라고 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것이다. 바로 역사의식을 가지라는 말씀이다.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오늘에 이르렀는지 그 역사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식민과 전쟁, 가난, 그 모든 역경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 나왔는지 꼭바로 알아야 한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한반도의 대



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오셨고, 세계에 우뚝 서는 경제, 문화, 스포츠 강국으로 성장시켜주셨음을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금에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변화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믿고 더욱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2018년 새해 들어,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 및 북미 간에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대화기류를 뉴스로 접하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해만 해도, 아니 올해 초까지만 해도 마치 치킨게임식으로, 마주 달려오는 폭주기관차처럼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았던 한반도 정세가 하나님께서 꼭지를 돌리시니 남북, 북미회담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다. 40년 광야의 삶을 마감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에서 하신 말씀이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열 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둘을 취하고 ~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둘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와 언약계 앞에

화기류는 그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적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기에 오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도한 것을 믿고, 그 응답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선한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힘을 모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엔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고 정쟁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하나님의 장엄한 역사 앞에 온 천하는 잠잠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기도하며 기다리자.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대로 꿈꾸는 듯한 평화통일의 역사를 목도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한은택 목사

henry 8829@naver.com

춘계산상집회

4월 2(월)~5일(목) 문의: 02-533-9191

호텔예약: 3월 27일(화) 10시정각 홈페이지(www.jcc.tv)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호6:1~6)



하나님을 똑바로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옴은 새벽 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호6:3).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두움을 뚫고 오는 새벽처럼 틀림없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만물을 소성케 하는 봄비처럼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총과 축복이 우리에게 내린다는 말씀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이 고통과 근심과 염려 속에 휩싸여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해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서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뜻을 좇고 그 분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했고, 그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눅18:27). 세상 만물도, 사람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곧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며(창17:1), 무소부재하신 분이고(시139:1~8),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며 있는 것을 없앨 수도 있고, 우리를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시는 분입니다(삼상2:6~7).

자유는 있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건만 우리는 아비 없는 자식처럼, 목자 잃은 양처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을 만홀히 여겨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왕을 우습게 알아도 처형되거나 추방되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안다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임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론이요, 일상생활도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겁니다. 죄악을 물마시듯 하지 않을 것이고, 예배시간에 핸드폰이나 만지고, 동냥하듯 헌금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요새처럼 어디서든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요4:23~24),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

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22:37), “너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시34:9).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자의 자세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런 자에게 구름 없는 아침햇살 같은 복이 임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무조건 용서하고 다 품으실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요, 공의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싸매고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사



총회장 이초석 목사

랑 일까요? 그래서 매일 죄 짓게 내버려두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자식을 망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일흔 번에 일곱 번도 용서하시나 하나님은 고름은 가차 없이 짜버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전12:14). 그러면 두렵기만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가차 없이 죄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죄를 떠나 하나님 뜻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진정한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싸매십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습니까? 징계 가운데 있습니까? 이 때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독이시며, 주의 종을 코치로 우리 곁에 두게 하사 옳은 길로, 합당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의 말을 들어야 병이 낫고, 투자를 하

려면 투자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대통령도 자문위원을 두어 그의 말을 듣고 참고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보면 좋은 선수에는 좋은 감독과 코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감독이십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시32:8). 최고의 감독 말을 들으면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 분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고의 삶을 구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안하려고 합니다. 힘들기 때

문입니다. 좁고 험악한 길이고, 훈련이 힘들다고 최고의 감독을 밀어냅니다. 그러면 별 수 없지요. 매일 그 밭에

그 반찬이요, 삼류인생으로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훈련방법은 많이 힘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 같이 쓰기 위함입니다(욥23:10). 최고의 선수를 만들기 위해,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훈련은 고되었으나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감독과 코치에게 감사를 돌리듯,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훈련이 고되었다고 불평불만 했던 것을 회개하세요. 그래야 당신 목에 금메달을 거는 복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하고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16:16)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16:17)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똑바로 안 베드로, 그것은 베드로가 비상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곧 그의 영이신 성령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전2:10).

자신감은 있는 것으로부터 온다

우리도 하나님을 똑바로 알려면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그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되고,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이는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습니다. 무기가 좋으면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연장이 좋으면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최고의 무기로, 전신갑주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오직 기도에 있습니다. 만 원어치 주유하는 것과 오만 원어치 주유하는 것이 다르듯 한 시간 기도하는 것과 다섯 시간 기도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깊은 속도 통달하여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지 않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축복,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해보지 못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압시다. 하나님을 힘써 압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해놓으신 큰 축복을 받으시라. 할렐루야!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 용달생 ::

따뜻한 봄날처럼

주위 환경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 생각이 행동을 유발하여 결국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의 심리학자 브루스 알렉산더는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먼저 쇠창살이 있는 좁은 공간에 쥐를 가두고 그냥 물과 모핀이 들어간 마약 물을 넣어두었습니다. 실험결과 쥐들은 마약 물을 집중적으로 마시다가 마침내는 죽게 되었습니다. 다 음에는 쥐 공원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쥐 공원은 푸신한 톱밥이 덮인 넓은 우리, 환한 조명과 따뜻한 온도, 놀이용 터널과 장난감 공, 숲 그림이 그려진 초록색 벽지로 둘러싼 울타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쥐 공원에 쥐들을 잔뜩 풀어 놓아 자유롭게 친구들을 사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냥 물과 마약 물을 넣어두었습니다. 실험 결과 쥐들은 그냥 물을 주로 먹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미군의 20%는 극한 환경과 극도의 불안감으로 인해 헤로인을 복용했습니다. 이들을 추적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전쟁 후 안락한 집과 환경으로 돌아온 그들의 95%가 헤로인을 중단했고 마약 금단현상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환경적 요소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위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육체적 쾌락, 금전의 유혹, 권력의 탐욕 등 좋은 것보다 나쁜 환경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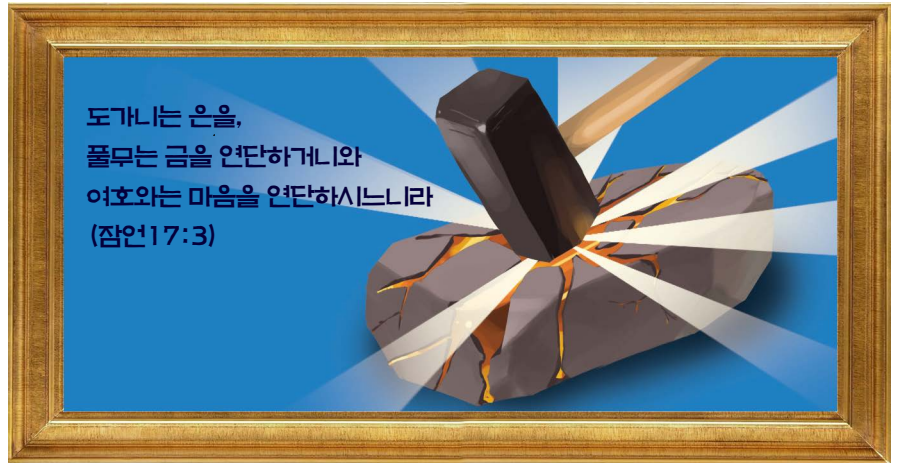
소가 더 많습니다. 나쁜 환경은 악의 길로 인도하고, 좋은 환경은 정상적인 선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나쁜 환경에 놓이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품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안처럼 완벽하게 좋은 환경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환경으로 들어가는 길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줄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으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하나의 길은 우리가 살면서 닦치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을 만들고 행복은 쾌락을 억제시키며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가 느끼는 행복을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도록 남에게 사랑을 행동으로 베푸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품안으로 가는 가장 완성된 길이 아닐까요? 지난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몸뿐만 아니라 마음마저도 꽁꽁 얼어서 주위를 둘러볼 여유도 움츠러들지 않았나요? 이제 봄이 왔습니다.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껴보세요. 따뜻한 봄날처럼.

이관섭
kwansup1029@gmail.com

이미 계산하셨습니다!

모처럼 근사한 이태리 음식점에서 그것도 풀코스 요리를 먹고 나와 계산을 하려는데, 점원이 “이미 계산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하고 가셨어요.”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남들처럼 모피 코트 입어보겠다고 몇 년 적금 털어서 백화점에서 샀는데, 계산대에 갔더니 ‘아까 어떤 분이 계산하셨는데요.’ 이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걸 너무 큰 액수라 실감이 안 옵니까? 그럼 간단하게 점심 먹고 나왔는데 누군가 계산을 하고 갔다하면 어떨까요? 황재한 기분이겠죠? 기분이 날아갈 것 같겠지요? 사무실에 들어가 옆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신나서 말하겠지요? 그럼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그 대가를 누가 치러줘서 살아났다면요? 감옥보다 더한 지옥에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누군가 보석금을 내줘서 그 곳

에 가지 않아도 된다면요? 그 뿐 아니라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가 막히게 좋은 천국에 가게 해줬다면요? 감사사가 절로 나와야 하고, 그 값을 치러준 분을 위해 뭐든 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러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분을 위해 뭐든 하려고 합니까? 글쎄요, 그러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당연한 듯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요. 은혜는 고사하고 되레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물염치한 자가 되지 맙시다. 그분의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분의 사랑과 희생이 우습게, 헛되게는 하지 맙시다.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할 도리를 합시다.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3:16).



:: 세상을 보는 창 ::

:: 생명의 말씀 ::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

필자는 청년사역을 하다 보니 밤에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차에 시동을 걸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는 일이다. 그것은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친절함의 자매님의 목소리에 따라 달리지만 목적지에 도착하기 때문이다. 생소한 길을 갈 때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혹 실수해서 잘못 가더라도 금세 새로 탐색해서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준다. 심지어는 카메라가 어디에 부착되어 있는지, 어느 도로가 막히지 않는지 실시간으로 길을 안내해줘서 오히려 내가 아는 방법보다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대로 가면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하다. 나처럼 길은 이 어둔 사람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도 우리에게 해줄 수 없는 일들이 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왔는지, 어디로 가야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은 알려주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방향하지 않고 인생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주는 내비게이션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을 보면 수천 년 전부터 신앙의 내비

게이션이 있었다. 이스라엘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 40년 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았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불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백성들은 거기서 천막을 치고 머물렀고, 불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백성들도 짐을 꾸려 움직였다. 또한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던 별이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별이 동방박사들의 내비게이션이다. 그랬기에 험하고 그 먼 길을 어려움 없이 찾아올 수 있었다. 우리 삶 가운데 파도도 있고, 폭풍도 있고, 암초도 있고, 때론 철쭉 같은 어두움도 있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을 직접 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라면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요셉과 아브라함의 인생길은 험통하였고, 다윗의 인생길은 부족함이 없었다. 바울의 길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승리의 외침이었고, 예수님의 길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119:105).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감사가 없으면 은혜도 없다

중국 임업국 발표에 따르면, 2014년에 국토 면적의 약 45%가 사막화되어있다고 한다. 매년 1,300km²의 토지가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다. 그 영향으로 앞으로 갈수록 우리나라에도 점점 더 황사현상이 심해지리란 예상이다. 사막이 계속 사막이 되며 주위를 사막화시키는 것은 비가 오지 않아서다. 비가 오지 않으면 수증기가 증발하지 않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질 수가 없고, 그러니 계속 반복해서 비가 오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그 주위가 점점 더 사막화되어가는 것이다. 밀림지역은 계속 수증기가 증발되어 구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계속 비가 온다. 그래서 밀림지역은 물이 풍부하다. 감사는 위로 올리는 것이요, 은혜는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다. 감사는 수증기와 같고, 은혜는 비와 같다. 감사가 없으면 은혜도 없다. 우리가 은혜가 메말랐다는 것은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불신앙적인 말이 나오는 것은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

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사30:26)고 말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별빛 같은 은혜를 감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 같은 은혜를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며, 햇빛 같은 은혜를 감사하면 영원히 햇빛도 필요 없는 광명한 나라로 인도해주시는 것이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할 때, 감사로 달빛을 만들고 은혜의 햇빛을 받아 난관을 극복한다. 그런 신앙은 꼭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조건을 만들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오늘날은 냉랭하게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요, 극도의 이기적인 시대요, 은혜가 없어져가는 시대다. 이럴 때 오히려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타지 말고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감사의 생활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그 위에 더 감사가 있어서 더 풍요로워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한다. “범사에 감사하라”(살전5:18).

임택함 목사
cjcc1004@hanmail.net

죄의 무게

혹시 바퀴벌레가 득실대는 방에서 숙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우연히 창고에서 잠들었다가 바퀴벌레 몇 마리가 몸에 기어 올라와 소스라치며 깨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끔찍했던지 당시 느꼈던 촉감과 냄새가 몇 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활할 정도지요. 만약 지금 제 방에서 아주 작은 바퀴벌레 한 마리라도 발견한다면 저는 절대 그냥 지낼 수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녀석을 찾아내고 박멸하는 것도 모자라 다른 녀석은 없는지, 어떤 경로로 생기게 됐는지 철저히 분석하겠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비슷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죄는 바퀴벌레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죄가 들어왔다고 놀라 소리 지르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오히려 쉽게 받아들이고 너무 편안하게 동거하니 혐오스러움의 대결에서 죄가 바퀴벌레에 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용납의 대가는 죄가 훨씬 가혹하지요. 우리 안에 들어온 죄는 가난, 질병, 마음의 고통들을 가지고 스스로를 기어올라 삶 전체를 끔찍

하게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영·혼·육에 숨겨져 있는 죄의 벌레를 낱알이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찾고(知) 애통하고(情) 돌이킬 때(意)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내 죄가 나의 신앙생활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작은 내 죄로 인해 가문, 공동체, 더 나아가 민족 전체가 사망으로 끌려가는 경우를 성경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집안이 그렇게 멸망했고, 요나의 불순종이 배 전체를 침몰시킬 위기를 가져왔으며, 아간의 죄가 민족을 몰살시킬 뻔 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열린 한 부흥회의 일화도 이를 반증합니다. 당시 예배를 인도하던 이길함 목사는 집회 중에 성령이 회중 가운데서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집회가 이렇게 영적인 생기를 잃어버렸을까 싶어 회중들을 향해 이를 물었고, 그때 한 사람

이 일어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회에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약 1년 전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하면서 자신의 아내와 유산을 잘 돌보아 달라고 저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해 주며 일부를 사취하였습니다.” 그의 고백을 듣자마자 사람들의 애끓는 회개가 예배당을 휩쓸었고, 그 때부터 막혔던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잠28:13).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몰래 숨어들어온 모든 죄들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 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회개 앞에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용서하시고 거룩함으로 덧입혀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인명 renming@daum.net**

Good News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환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선시대 선조 임금 때 울곡 이이는 오랑캐와 왜국의 침입에 대비하여 10만의 군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소신료들이 그의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이토록 조용하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괜히 전쟁 운운해서 민심을 소란케 한다며

전쟁을 대비하지 않았습니니다. 그 결과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임금이 궁궐을 버리고 의주까지 피신을 하게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이처럼 준비가 없는 삶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7년간의 길고 긴 전란이 끝나자 영의정을 지낸 서애 유성룡은 후세 사람들에게 전쟁의 교훈을 남기기 위해 ‘징비록(懲毖錄)’이란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징비’란 시경에서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라는 구절에서 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생의 ‘징

비록’과 같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9:27).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과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할 길도 명확히 제시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10:13). 태어날 때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겨울에 좋은 유자차와 레몬차

요즈음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커피숍에서도 추운 날씨에 몸을 녹여줄 차로 달콤새콤하여 자주 마시게 되는 유자차와 레몬차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자차와 레몬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자차는 시큼하고, 성질이 서늘하고 독성이 없으며, 폐와 위장의 경락으로 들어가서 속을 편하게 하고, 음주해독에도 도움이 됩니다. 유자에는 비타민C, 비타민P, 유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인체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작용이 있으며, 플라바논계 색소로 인하여 모세혈관을 튼튼히 하고 출혈을 방지합니다. 한의학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의 순환이 잘 되지 않을 때 기(氣)가 울체(鬱)되었다고 하며, 그럴 때 목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거나, 두통, 생리통과 같은 증상이 생기는데, 이러한 기가 울체(氣鬱)된 상태에 유자가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작업을 하거나, 공부나 연구를 할 때 유자차 한잔이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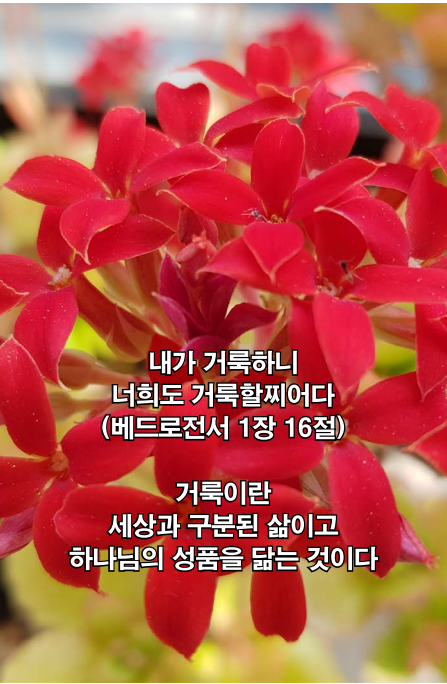
의 무게를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체력이 너무 떨어질 때는 복용을 피합니다. 유자보다 더 시큼한 레몬은 무엇보다도 비타민C와 구연산이 많기 때문에 신맛이 강합니다. 레몬도 폐와 위장의 경락으로 들어가며, 더위로 인한 열을 풀어주고, 감증을 줄이고 식욕을 증진시켜주며, 마른기침이나 입상부의 입덧에 효과가 있습니다. 레몬산은 위의 단백질분해효소의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를 돕고 자궁수축을 억제하여 임신 중에 도움이 됩니다. 식욕이 부족할 때 레몬차가 도움이 되며, 얼굴 미용 팩으로 레몬을 잘게 쪼개어서 얼굴 피부에 문질러주면 주름살을 제거하고, 얼굴에 광택을 증가시켜 피부의 색소침착, 기미 제거 등 미용증진에 효과가 있습니다. 눈이 침침할 때에도 레몬차가 도움이 됩니다. 레몬은 신맛이 강하므로 위궤양, 위산과다한 경우, 당뇨병자, 어금니가 아픈 사람은 복용을 피합니다. 유자차와 레몬차가 공통

적으로 소화 및 숙취해독에 도움이 되는데, 갈증이 심할 때는 레몬차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에는 유자차가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이와 비슷한 효과를 가진 진피차(귤껍질차) 역시 잘 알려진 국민차 중에 하나입니다. 진피도 위의 두 차처럼 폐와 위장의 경락으로 가며, 독성이 없고, 가래기침, 구토증세에 도움이 됩니다. 마른기침에는 레몬차가 좋는데 반해, 가래가 있는 기침에는 진피차가 좋으며, 갈증이 있더라도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는 유자차가 좋는데 반해, 수분 소모가 많아 생긴 갈증의 경우는 레몬차가 더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과일들과 과일 껍데기들까지도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역할이 다른 것을 보면, 참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한 주간도 내 몸에 좋은 건강차 한 잔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Dr. 설재현 kseolmed@hanmail.net**

먼저 가족 안에서

고등학생 시절,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해외에서 유학을 할 당시 한국에서 급한 전화를 받았다. 엄마가 위독하시다는... 당시 엄마는 위암이셨지만 11년 전쯤에도 암마가 돌아가실 뻔하다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나오신 적이 있어 나는 당연히 이번에도 목사님의 안수와 기도로 나오실 거라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으로 급하게 돌아갈 짐을 챙기며 혹시 모르니 검정구두를 챙겨 가라는 홈스테이 할머니의 말에 ‘난 필요 없을 거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살려 주실 것을 믿고 있었다. 한국에 도착하여 바로 중환자실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산소 호흡기를 하고 힘겹게 숨을 내쉬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할 말을 잃었고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귀에 대고 “엄마...”라고 나지막이 말하며 손을 잡은 지 3분 후 엄마는 눈물을 흘리시며 “주여...”라는 말과 함께 마지막 호흡을 하셨다. 내게 있으리라 생각지도 않았던, 드라마에서나 보는 일이라 생각했던 일이 나에게 일어나니 슬픔으로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며 어떠한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다. 그 후에는 가족들 모두 힘겨워하였고, 나도 그러했다. 이후 이 생각, 저 생각하며 성경을 읽다보니 하나님께서 엄마를 일찍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11년 연장시켜 주신 것이라 깨닫고 마음을 추슬렀다. 엄마가 하나님 품에 안긴 후 내 삶의 우선 순위는 하나님 다음으로는 가족이 되었다. 가족 다음의 우선순위는 없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땅에서의 바로 이 순간이 사무치게 그립다는 생각을. 나도 언젠간 하나님 품에 안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웃는 얼굴이 그리워질 날은 온다. 그러니 훗날 아쉬워도 후회하지 않게, 그리워도 행복할 수 있게 지금 서로 사랑하자. 가족 안에서 먼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디모데전서 5:8).

박찬영
post.naver.com/imsfriendly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찌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거룩이란
세상과 구분된 삶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다